

일본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변천과 시사점

최 경 환 *

1. 서언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능한 인력 확보는 농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역시 시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농업인력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나름대로 역할을 담당한다. 역할이 커지는 교육기관은 성장하지만, 그 기능을 다 했거나 위상이 애매한 기관은 도태된다.

일본의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관심은 멀리 메이지유신¹⁾ 시대까지 거슬러 간다. 메이지²⁾ (明治)시대부터 쇼와(昭和) 초기까지는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 독일형 공립농업학교의 도입에 힘을 들인 정부가 쇼와(昭和)시대에 들어서면 점차 경영과 생활지도에 중점을 둔 덴마크형 사숙풍(私塾風) 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田中 文章 등 2014: p.225).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영향을 받아 덴마크형 사숙풍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되고, 그 결과 농업대학교와

* (사)한국농촌복지연구원 원장(kyeong0820@gmail.com)

본고는 저자가 마상진 외(2020) 연구의 일환으로 위탁 받아 수행한 “주요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체계와 시사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됨(미발간 보고서).

1) 일본 메이지 천황 때 막부(幕府, 바쿠후)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복고를 이룩한 정치 변혁과정을 말함. 대개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 연안에 나타나 문호 개방을 요구한 1853년에서 1877년 전후로 잡고 있음. 페리가 이끄는 이른바 흑선(黑船)의 출현으로 일본 국내에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막부세력과 반 막부세력이 대립하는 격동을 겪었음. 그 결과 300여 년 내려오던 막부가 패배하고 1867년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천황제 정부가 성립, 1868년 (메이지 원년)부터 새 체제에 의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었음.

메이지 정부는 학제·징병령·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구미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관 주도의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 강화에 노력, 새 시대를 열었음. 일본은 이 유신을 통해 근대적 통일국가를 만들어나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했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시작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됨.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군국주의로 나아갔음.(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2) 근대 일본의 연호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덴마크형 교육을 반영한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된다. 이렇게 설립된 농업자대학교가 변신을 꾀하였으나 결국 폐지되고 최근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개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의 농업인력 육성기관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

2.1.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기의 농업학교

2.1.1. 메이지 정부의 권농정책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은 일본 근대화의 물결을 탄 계기가 되었다.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 메이지 정부는 서구 문물을 받아들 이는데 박차를 가했으며, 권농정책도 그중의 하나였다. 서구 열강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력을 기르는데 농업 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1873년 이후 농업학교와 시험장 및 육종장 등을 설치하고, 외국인 교사도 초빙하여 서구 농법을 포함한 농사 지도를 개시했다. 1881년부터는 서구농법의 보급과 일본의 토착 농업기 술을 융합할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農談會)를 개최하기도 했다.

메이지 정부는 외국 문물을 배워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유학생을 서구에 보냈다. 이때 유럽의 근대국가 체계와 시책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서 유학한 K³⁾는 독일농업협회가 농업진흥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목격하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1884년 독일 농업평 의회를 참고로 「대일본농회」를 설립하고, 본인이 초대 간사장에 취임했다. 또, 메이지 정부 는 1885년부터 대학 교원이나 시험장 직원, 독농가(老農)들을 활용하여 농사순회교사제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의 농담회(農談會)를 이용한 농사기술개량사업을 실시했다.

2.1.2. 독일형 계통농회와 농업학교의 설립

메이지 시대 농학계의 대학자였던 Y⁴⁾는 대일본농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독일농업협회와

3) 인물의 실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문을 사용함.

4) 그는 뒤에서 살펴보는 동경농업대학 설립자의 초빙으로 1911년 초대 학장에 취임함.

같은 농사기술개량과 교육을 실시하는 계통조직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들여 1894년 정부 고위관리들이 대일본농회를 모체로 농정활동도 하는 농사지도 조직으로 「전국농사회」를 설립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Y 등 대일본농회측이 반발하자 전국농사회는 대일본농회를 이탈했다. 전국농사회는 1898년 41개의 부현(府懸)농회, 505개의 군(郡)농회, 8,806개의 정촌(町村)농회를 설립했다. 1899년에는 이들 조직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강제가입과 회비 강제징수, 농업계 이익정치대표 기능을 법적·공적으로 규정하는 독일형 농회법을 제정하고, 계통농회 조직을 확립했다.

설립 당초의 계통농회는 국가의 지원·보조를 받아 농업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 독일 농업학교를 모델로 한 1899년의 농업학교 규정에 근거하여, 에이치현(愛知縣)의 안성농림학교를 비롯한 농업학교 설립이 전국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학교는 졸업생의 진로가 농업 관련 관리나 단체·농사시험장의 직원, 농업학교 교원이 되는 등, 농업인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2.2. 쇼와(昭和) 초기의 사숙풍(私塾風) 교육기관

메이지 정부 말기부터 다이쇼(大正)에 걸쳐 각종 마스크은 농업 발전을 토대로 생활과 문화, 교육 등 종합적인 발전을 통해 지역 만들기를 하며, 세계의 낙농 대국이 된 덴마크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안성농림학교의 교장이었던 S는 재빨리 덴마크류의 방법을 받아들여 안성(安城)이 「일본의 덴마크」로 불리도록 하였다.

안성농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G는 1915년 야마가타현(山形縣) 자치강습소장에 취임하여 덴마크형 서민고등학교의 이념을 실천했다. 이때 G의 절친이기도 했던 농업공무원 L은 계통농회에 의한 농사기술개량이 일단락되면,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1920년대 들어 계통농회의 농사기술개량기관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기관으로의 탈피를 구상했다(松田: p.89). 동시에 경영인으로서의 농업인 육성에 성공한 덴마크의 서민고등학교와 소농학교를 모델로 사숙(私塾)풍의 농민자제교육기관인 「일본국민고등학교」의 설립을 시도했다. 1926년 일본국민고등학교를 설립한 L은 덴마크에 파견되어 있던 친구인 G를 초대교장에 취임시켰다(佐藤 2005: p.81).

이후 일본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하여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농민 도장이나 수련농장,

농사(農士)학교, 농민복음학교 등의 형태로 덴마크형 사숙풍 농촌중견 청년양성기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농림성도 지원했다. 이러한 농촌교육 기관이 실시한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평가가 좋아, 종래의 독일형 농업학교는 기술이나 지식교육에 편중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L이 목표한 계통농회의 경영 컨설팅 기관화와 자립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의 설립 시도는 직후에 일어난 세계공황으로 농촌이 곤궁한 상황이어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계통농회는 점점 정치단체 색을 강하게 띠고, 사숙풍 농촌교육 기관은 2차 세계대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사상체제 전파 수단으로 전략하였다.

2.3. 농업대학교의 설립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형 농업학교는 미 점령군 정책에 의해 도입된 미국형 협동농업보급사업에 관한 기술원 양성기관인 농업강습소나 농업고교, 농업대학, 종합대학 농학부 등으로 개편되었다. 이들은 현재 농업 관련 연구자와 교육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 있다.

한편, 덴마크형 사숙풍 농촌교육 기관은 점령군 정책에 의해 교육내용이 대폭 수정되어, 1951년의 경영전습(傳習)농장교육요강에 의해 「경영전습농장」으로 개칭하고, 각 지역에서 취농자 육성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고도 경제성장기의 농지전용 증가나 농촌노동력의 도시 유출에 따른 취농자의 감소에 따라 1972년 경영전습농장은 폐지되고, 개량보급원의 양성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던 농업강습소와 합병됐다. 합병 후에는 1977년 개정된 농업개량조장법에 근거하여 「농업대학교」로 변경되고, 국가의 협동농업보급사업⁵⁾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된다(安藤 2013: p.20). 농업대학교는 보급지도원(보급지도센터) 및 시험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취농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2.4. 농업자대학교의 설립과 폐지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정의 커다란 과제는 농업후계자 확보였으며, 국가가 주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당시 이 기관의 설립방침을

5) 협동농업보급사업은 농업개량조장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고도의 기술·지식을 지닌 보급지도원을 광역 자치 단체인 도도부현에 설치하고, 보급지도원이 농업인에게 직접 기술·경영지도를 함.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① 교육은 본래 국가 업무이므로 국립으로 한다.
- ② 4년제 대학과 2년제 단대(短大)의 중간인 3년제로 한다.
- ③ 졸업 후에도 농업 종사를 위해 농업 경험을 거쳐 반드시 농업경영인 자격을 보유한다.
- ④ 전료제(全寮制)를 취함으로써 인격 도야를 도모함과 아울러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한다.⁶⁾
- ⑤ 농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대해서도 교양을 쌓는다.
- ⑥ 입학자는 지사 추천으로 하지만, 시험은 엄격히 시행한다.

농림성 고위 관료의 주도로 1968년 도쿄(東京都 多摩市)에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때 모델로 한 지바현(千葉県) 농림중견 청년양성소는 경영전습농장의 근로주의의 방침에 의문을 가지고, 폭넓은 시야의 육성이야말로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전료제(全寮制)의 특색은 살리면서도 농장은 갖지 않고 기술분야 학문 외에 사회과학 분야에 무게를 두고, 모범농가에 대한 파견 실습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농업자대학교는 입학시험제와 국립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전료제나 자유로운 커리큘럼, 졸업자격이 없는 전전(戰前)의 사숙풍 교육기관, 나아가서는 덴마크의 서민고등학교나 소농학교의 흐름을 탄 것이었다.

농업자대학교는 각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다수 배출해 왔지만, 농업대학교가 각지(현 단위)에서 정비됨에 따라 입학생 모집에서 경합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농업후계자의 감소와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률 상승 등으로 농업자대학교는 정원 감소가 일상화되고, 2004년에는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는다. 그 후 2006년에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로 조직이 통합되고, 2008년에는 그 본부가 있는 쓰쿠바시(市)로 이전하여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농업자대학교는 농업경영자교육의 대학원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로서 교육내용과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교육을 개시했다. 그러나 2010년 4월 27일 행정쇄신회의에 의한 사업 분류에서 사업 폐지 판정을 받았다. 이때 「역할은 끝나가고 있다」, 「지방과 4년제 대학에 맡길 것」 등의 지적이 이어져, 2012년 3월 농업자대학교는 심기일전을 위해 쓰쿠바로 학교를

6) 전료제란 전원 기숙사 체제를 의미함.

이전한 지 약 4년 만에 폐교함으로써 44년의 역사에 막을 내렸다(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技術總合研究機構 農業者大學校 2012: pp.5~27).

2.5.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개교

농업자대학교 동창회는 사업 폐지 판정에 반대를 표명하고, 「국가가 리더가 될 농업인의 교육·육성을 책임감을 가지고 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농림수산대신에게 발송했다. 또 판정에 분개한 재학생은 곧바로 폐지반대 서명 활동을 개시하고, 5월 24일 「농업자대학교 존속을 요구하는 요청서」와 2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했다. 더욱이 6월 18일 농업자대학교의 이념과 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응원해 온 각계 전문가 43명으로 이루어진 「농업자대학교 교육응원단 유지 일동」(대표: I 동경대학 명예교수)은 「농업자대학교 폐지는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고 장래에 중대한 화근을 남긴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 존속과 내실있는 운영을 호소했다.

농림수산성은 재학생이 졸업하는 2011년도 말까지는 책임을 지고 농업자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시행하고, 2011년도 입학생 모집은 하지 않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금후의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농업자대학교의 금후 역할에 관한 의견교환회」를 2010년 8월부터 11월에 걸쳐 3회 개최했다. 농업자대학교 재학생과 동창회, 교육응원단의 각 대표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농림수산성 고위 관료들과의 의견교환 끝에 새로운 농업경영인 교육의 방향이 정리되었다.

새로운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① 6차 산업화 등 일본 농업·농촌의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갈 경영 능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② 국제적 시야를 가지고 일본의 특성과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선진 농업과 6차산업을 전개하는 농업경영인 육성을 역할로 하는 대응 방향이 제시되고, 그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성은 2011년도 예산 중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실시준비사업을 이용해 6차 산업화 등 앞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전개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모 결과, 사업실시 주체가 된 일반사단법인 일본식농연휴기구는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커리큘럼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2011년 12월 기본교육 커리큘럼을 정리했다. 「장래 비전의 책정과 실천」, 「자율적 과제해결 능력의 양성」, 「리더십 함양」을 교육목표로 제시했다. 커리큘럼은 「경영이론」,

『농업이론』, 『사회관계이론』의 3가지 학군을 기본 구성으로 하며, 『강의』, 『연습』, 『실습』이라는 교육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해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양성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전에 없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일본 농업의 장래를 우려하여, 정부의 농업자대학교 폐지 방침에 위기감을 가진 각계 인사가 협의를 거듭하여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계와 산업계, 학계 등 All Japan의 힘을 결집하여 차세대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2년 2월 「일반사단법인 애그리 퓨처 재팬(Agri Future Japan)(이하 AFJ)」이 설립되었다.

AFJ 회원에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앙금고 등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그룹을 비롯해 전국농업회의소, 일본농업법인협회, 대일본농회, 농업자대학교동창회 등의 농업관계단체와 더불어 식품기업과 유통·소매업 및 일반기업 등 약 200개 사에 이르는 다양한 업계의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소비자단체도 참여하였다.

AFJ는 농림수산성의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쿄 및 지방에서 젊은 농업인과 농업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기 농업경영 세미나 개최를 거듭했다. 이러한 실적을 쌓으며 상설교육기관 개교를 위해 1년간의 준비를 거쳐 2013년 4월 4일 AFJ를 운영 모체로 한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개교했다.

3.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 실태⁷⁾

지금까지 페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민간기관 등 다양한 농업인력육성기관들이 생겨났다. 워낙 다양하므로 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⁸⁾

7) 일본에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은 다양함. 고등학교 과정부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이 다양한 기관(시설)에서 시행되고 있음. 여기에서는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농업대학교, 일본농업경영대학교 및 동경농업대학을 검토 대상으로 함.

8) 2013년도 현재 「동학부」라는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국립 25개 교, 사립 6개 교로 총 31개교였음. 이외에 '생물', '생명', '자원', '환경', '식(食)' 등의 용어를 포함한 명칭의 학부가 약 60개 정도로 파악되었으며(上野 忠義

여기서는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에 내재된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농업대학교와 일본농업경영대학교 그리고 동경농업대학의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동경농업대학을 살펴보는 것은 메이지 정부 초기에 사립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큰 농업계 대학으로 자리 잡고 다방면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동경농업대학은 1891년 민간(사립) 농업인 교육 시설로 출발하여 1903년 전문학교령에 따라 사립 농업전문학교⁹⁾가 되고 1925년에는 법령에 의해 고등농업교육기관으로 인가되었는데¹⁰⁾ 농과계 대학으로는 일본 최초의 사립이었다(上野 忠義 2014.4.: p.29).

3.1. 농업대학교

농업대학교는 이전에 보급지도원 양성기관이었던 농업전습농장이 농업개량조장법에 의해 1977년 농업대학교로 전환된 것이다.

1934년 농촌중견인물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 현(縣)의 수련농장은 종전 후 명칭을 경영전습농장으로 개칭했다. 경영전습농장¹¹⁾은 농업개량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위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경영전습농장전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법제화, 인건비 보조, 시설의 정비·확충 및 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농림수산성에 진정하여 1977년 농업개량조장법 개정에 의해 농업교육시설이 법률상에 자리 잡게 되어 농업대학교가 태동하였다.¹²⁾

농업대학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체를 담당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후계자인 청년농업인과 그 외 농업을 담당할 자에 대해 영농 개선 또는 농촌생활 향상에 관한 과학적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천적인 연수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각 도부현(道府縣)이 설립 주체이며, 현재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중 42개 도부현에 농업대학교가 설치되어 있다<표 1>.

2014.4.: p.29),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9) 이때 관립(官立)으로는 삿포로시농학교와 모리오카시농림고등학교가 농업전문학교로 되었음.

10) 이 때 관립(官立) 고등농업교육기관으로 규슈제국대학(九州帝國大學)농학부와 교토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농학부가 신설됨.

11) 농업기술직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도도부현에 설치되었던 농업강습소는 1960년대 후반 그 역할이 모호해져 폐지되거나 경영전습농장으로 흡수되었음.

12)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oudaikyo.jp)

도부현(道府縣) 농업대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 담당자를 양성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과정은 크게 양성과정, 연구과정, 연수과정의 세 과정으로 나뉜다. 고교졸업 정도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 역할이며,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추어 연구과정과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과정별로 분야를 나누어 몇 개의 코스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 과정 전부를 운영하는 농업대학교는 5개교에 불과하며,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정원도 소수정예로 운영하고 있다<표 1>.

농업대학교는 상호 협력을 위해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를 결성·운영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은 42개 도부현립 농업대학교 외에 5개의 민간(법인)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바라키현의 이연학원 농업영양전문학교와 일본농업실천학원, 도쿄도의 일본농업경영대학교, 나가노현의 야쓰가타케 중앙농업실천대학교, 오카야마현의 공익재단법인 중국사국낙농대학교 등이다. 이외에도 이 협의회의 회원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업연수를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다. 농림수산성이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기관들은 <표 3>과 같다. 이들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면 전국 47개 도도부현마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농업교육 연수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업대학교는 양성과정 외에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하기 위해 농업경영숙을 운영하기도 한다. 농업경영숙은 「농업경쟁력강화 프로그램」(2016년 11월 결정)에 맞추어 「농정 신시대에 필요한 인재력 강화 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 지역의 농업인이 영농하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장이다<표 4>. 고도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습득하고 금후 농업계를 견인할 우수한 경영감각을 지닌 담당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련농장과 경영전습농장(농업강습소)을 거쳐 오늘에 이른 농업대학교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농업대학교는 협동농업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료제에 의한 실천 교육을 중심으로 한 농업후계자·농업 담당자의 육성에 주안을 두어왔지만, 비농가 출신 및 여자 입학생이 증가하고, 교육 요구도 다양하여 이에 대응한 연수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농업대학교 커리큘럼검토회를 개최하고 농업대학교 교육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2000년대 들어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대학교가 21세기의 농업·농촌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담당자를 육성하는 연수교육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농업대학교 연수교육 검토위원회를 설치,

농업대학교의 이상적 모습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수산성에 제안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표 1> 농업(농업경영력 및 지도력 강화 포함) 연수교육기관

지역	도도부현명	농업대학교명	과정별 (모집) 정원		
			양성 과정	연구 과정	연수 과정 등
동일본 권역	北海道(홋카이도)	홋카이도립농업대학교	60	10	10
	青森縣(아오모리현)	아오모리현영농대학교	50	-	5 + 약간명
	岩手縣(이와테현)	이와테현립농업대학교	70	-	-
	宮城縣(미야기현)	미야기현립농업대학교	55	-	-
	山形縣(야마가타현)	야마가타현립농업대학교	60	-	-
	福島縣(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농업종합센터농업단기대학교	60	-	5
관동 권역	茨城縣(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립농업대학교	160	10	-
		이연학원농업영양전문학교	140	약간명	약간명
		일본농업실천학원	30	40	-
	栃木縣(도치기현)	도치기현농업대학교	80	-	140
	群馬縣(군마현)	군마현립농업대학교	55	-	-
	埼玉縣(사이타마현)	사이타마현립농업대학교	55	-	35
	千葉縣(치바현)	치바현립농업대학교	80	20	25
	東京都(도쿄도)	일본농업경영대학교	20	-	-
	神奈川縣(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립 가나가와농업아카데미	30	30	-
	山梨縣(야마나시현)	전문학교야마나시현립농업대학교	30	약간명	-
長野縣(나가노현)	나가노현립농업대학교	50	-	100	
	야쓰가타케 중앙농업실천대학교	30	10	-	
	靜岡縣(시즈오카현)	시즈오카현립농업대학교	100	20	약간명
新潟縣(니카타현)	니카타현농업대학교	80명 정도	10명 정도	-	
동해 · 근기 권역	岐阜縣(기후현)	기후현농업대학교	30	-	-
	愛知縣(아이치현)	아이치현립농업대학교	100	-	-
	三重縣(미에현)	미에현립농업대학교	30	-	10
	滋賀縣(사가현)	사가현립농업대학교	30	-	10
	京都府(쿄토부)	쿄토부립농업대학교	20	-	-
	大阪府(오사카부)	오사카부립 환경농림수산종합연구소 농업대학교	25	-	-
	兵庫縣(효고현)	효고현립농업대학교	40	-	-

(계속)

지역	도도부현명	농업대학교명	과정별 (모집) 정원		
			양성 과정	연구 과정	연수 과정 등
	奈良縣(나라현)	나라식·농매력창조국제대학교	약 40	-	-
	和家山縣(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농립대학교	40	-	-
중국· 사국 권역	鳥取縣(돗토리현)	돗토리현립농업대학교	30	-	60
	島根縣(시마네현)	시마네현립농립대학교	40	-	-
	岡山縣(오카야마현)	오카야마현농립수산종합센터농업대학교 공익재단법인 중국사육농대학교	35 30	- -	- -
	広島縣(히로시마현)	히로시마현립 농업기술대학교	40	-	-
	山口縣(야마구치현)	야마구치현립농업대학교	40	-	35
	徳島縣(도쿠시마현)	도쿠시마현립 농립수산종합기술지원센터농업대학교	40	약간명	-
	香川縣(카가와현)	카가와현립농업대학교	45	-	15
	愛媛縣(에히메현)	에히메현립농업대학교	55	10	-
	高知縣(고치현)	고치현립농업대학교	50	-	-
	福岡縣(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농업대학교	50	-	20
구주 권역	佐賀縣(사가현)	사가현립농업대학교	50 + 약간명	-	-
	長崎縣(나가사키현)	나가사키현립농업대학교	70	-	-
	熊本縣(구마모토현)	구마모토현립농업대학교	160	약간명	50
	大分縣(오오이타현)	오이타현립농업대학교	60	-	30
	宮崎縣(미야자키현)	미야자키현립농업대학교	65	-	-
	鹿兒島縣(가고시마현)	가고시마현립농업대학교	115	20	-
	沖繩縣(오키나와현)	오키나와현립농업대학교	30	-	10
	43도도부현	47교			

주 1) 민간농업교육시설은 고딕체로 표시함.

2) 농업대학이나 민간농업교육시설이 없는 현: 秋田縣(아키타현), 富山縣(도야마현), 石川縣(이시카와현), 福井縣(후쿠이현)

자료: 농립수산성 홈페이지(2020.8.20. 검색) 및 전국농업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2020.8.20. 검색)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함.

<표 2> 도부현(道府縣) 농업대학교에서의 연수교육

과정	대상자	표준 이수시간	교과	학습 방법
양성 과정	고교 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	2년간 2,400시간 (80 단위) 이상	분야에 따른 전문과정(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강의, 연습, 실험과 실습이 대략 반반씩
연구 과정	농업대학교 양성 과정 졸업생과 단대(短大) 졸업자	2년간 2,400시간 (80단위) 이상 (※1년 학교도 있음)	분야에 따른 전문과정(벼, 밭작물, 채소, 과수, 화훼, 낙농, 육우, 양돈, 양계 등) 양성과정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더욱 심화하고, 고도의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양성	강의, 연습, 실험과 실습이 대략 반반씩
연수 과정	기술지식의 향상을 지향하는 농업자와 취농을 희망하는 자	1일~수 주간 정도 (코스에 따라 다름)	분야별로 코스를 설치(농업기술, 농업기계 조작, 경영관리, 농업체 협 등)	수강자의 경영 발전 단계, 수강자의 수요를 토대로 학습 실시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필자가 정리함.

<표 3> 기타 농업연수교육 기관

연수기관명	소재지
팔굉학원 북해도농업전문학교	호카이도(北海道)
아키다현농업연수센터(미래농업 프론티어 육성연수)	아키다현(秋田縣)
이시가와 耕稼塾(이시가와농업인재기구)	이시가와현(石川縣)
후쿠이원예칼리지	후쿠이현(福井縣)
도야마농업미래칼리지	도야마현(富山縣)
오카야마현립청소년농림문화센터(삼덕원)	오카야마현(岡山縣)
고치현립농업담당자육성센터	고치현(高知縣)
에그리이노베이션대학교	칸도(關東)
에그리벤처대학교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필자가 정리함.

<표 4> 농업경영숙 개요

운영주체	도부현 농업대학교 등이 운영 주체가 되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운영
수강생	이미 취농하고 있는 농업인 등
커리큘럼	마케팅, 조직운영, 자금계획 등의 노하우
연수 방식	야간, 농한기 등의 집합 연수
강사	타 산업 경영자, 세무사, 컨설턴트, 대학교원 등의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 개강 시기, 연수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짐.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농업인력정책의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성은 차세대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재력강화 종합지원사업¹³⁾’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40대 이하 농업종사자를 4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¹⁴⁾ 또한, 문부과학성은 Society 5.0시대(초스마트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을 지향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 산업 분야에서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래세계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 요점이다.¹⁵⁾ 한편 농림수산성은 농정 신시대에 필요한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데,¹⁶⁾ 문부과학성과 협력하여 농업대학교를 전문직 대학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직 대학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과 동시에 변화에 대응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응용력 및 창조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농업대학교가 계속 존속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하려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도부현)의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2. 일본농업경영대학교¹⁷⁾

농업자대학교의 폐지에 대한 반발이 단초가 되어 설립된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한 학년 정원은 20명이다. 기숙형에 의한 2년간의 교육을 통해 고도의 경영력을 겸비하고, 지역농업의 지도자가 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자격은 19~40세의 농업에 종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예견되는 자로, 입학 전에 일정 기간의 농업종사나 농업실습경험이 요구된다. 학교는 도쿄(東京都 港區)에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의 특징은 농업경영자의 육성에 특화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영력」, 「농업력」, 「사회력」 및 그들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력」을 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실제 강의에서는

13) 취농준비, 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업법인등이 활동하기 편리한 작업환경을 정비해가면서 실시하는 실천연수와 다양한 인재 확보, 지역에서의 신규 취농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광범한 세대의 재교육(리커런트 교육) 실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14)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15) 문부과학성(www.mext.go.jp) (검색일: 2020.8.10.).

16) 農林水産省(經營局, 生産局,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2017.4. “農政新時代に必要な人材力を強化するシステムの整備”(參考資料).

17) 田中 등(2014)을 토대로 일본농업경영대학교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필자가 정리함.

농업계, 산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국내외의 폭넓은 주제를 다뤄 세계적 시야를 유지하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다.

통상강의는 「경영력」, 「농업력」, 「사회력」, 「인간력」의 4가지 능력에 대응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주 1회 정도의 빈도로 농업계와 산업계에서 활약하는 경영자들을 초청한 「특별강의」가 있다. 그 외에도 연습으로서 「세미나」나 「종합적 학습」도 받아들여 학생 주체의 조사 연구와 발표, 토론 등에 의해 과제해결 능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강의나 연습이라는 실내교육만이 아니라 「현장실습」도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교에는 부속농장이 없으므로 1년 차 7월~10월에는 각지의 선진농업경영체에 학생을 파견한다. 거기에서는 현장작업만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경영감각, 리더십, 지역 만들기의 대처 등을 배우고, 학생들에게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과제를 인식 시키는 것이 큰 목표이다. 또 2년 차의 7월~10월에는 AFJ 회원 기업의 협력을 얻어 농업 외 기업에 대해 학생을 파견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 과제 발견을 목표로 하여 슈퍼에서의 점두판매(店頭販賣), 식품기업에서의 상품개발 등 다채로운 실습내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강의와 현지 실습에 의한 학습 성과로 학생은 「졸업 연구」를 발표하고 2년간의 커리큘럼을 마치게 된다. 졸업 연구에서는 졸업 후의 경영계획의 수립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제안 등이 이루어진다.

덧붙인다면 전료제(全寮制)도 교육의 하나로 보고 있다. 2년간의 공동생활을 통해 학생들끼리의 논의를 심화하고, 풍부한 인성과 사회성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농업경영대학교는 농업자대학교를 직접 계승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목표하는 방향성에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다. 그 설립 경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금후 농업계 인재 육성에 대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우수한 농업경영인을 많이 배출해 온 농업자대학교의 교육 특색을 여러 가지 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표 5>.

<표 5> 농업자대학교와 일본농업경영대학교의 비교

		농업자대학교(다마시)	농업자대학교(쓰쿠바)	일본농업경영대학교
개교		1968년(~2009년)	2008년(~2012년)	2013년
운영주체		농림수산성 (200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 기술종합연구기구	일반사단법인 에그리 퓨처 재팬(AFJ)
교사 소재지		도쿄도 다마시	이바라키현 쓰쿠바	도쿄도 미나토구
수업연한		3년간	2년간	2년간
1학년 정원		50명	40명	20명
입 학 자 격	학력	고교졸 이상	(4년 대졸 정도의 이해력 등)	고교졸 이상
	연령	19세 이상 30세 미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19세 이상 40세 이하
	농업실습 경험	1년 이상	1개월 이상	농가 출신 3개월 이상 비농가 출신 6개월 이상
교과 구성		농산, 축산, 경제, 사회, 인문, 종합생활, 정보· 커뮤니케이션, 국제세미나, 특별강의 등	프론티어 테크놀로지, 에그리비즈니스, 식품 안전, 환경보전, 지역 매니지먼트, 국제, 종합교과, 세미나, 특별강의 등	경영력영역, 농업력영역, 사회력영역, 인간력영역, 세미나, 종합적 학습, 특별강의 등
농가과견실습		6개월	4개월	4개월
기타 실습		해외연수(3주간), 재택학습(3개월)	4개월	4개월
학교부속농장		없음	없음	없음
기숙사생활		기숙사 생활(학교 인접)	기숙사 생활(도보 3분)	기숙사 생활(전차 통학)
입학자 학력		고교졸이 대부분	대졸이 약 6할	대졸이 약 6할(1기생)
입학 시 연령		19~20세가 대부분	평균 26~27세	평균 24~25세(1기생)
비농가 출신자		1할 미만	약 5할	약 3할(1기생)
졸업생 취업률		9할 이상	9할 이상	...

자료: 南石晃明 등(2014) p.233.

첫째, 농업기술 습득이 아니라 농업계의 리더인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사(校舎)는 도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부속농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농장관리의 필요성이 없다. 또 통학에 불편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료제로 하는 것은 농업경영에 뜻을 둔 자끼리의 대인관계 형성과 인격의 도야를 위함이다.

둘째, 인문·사회과학계와 경영학계의 과목을 중심으로 폭넓게 배우는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저명한 연구자와 경영자 등의 외부 강사를 전국에서 초빙할 수 있다. 또 교사(校舎)가 대 소비지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관점과 도회적인 발상을 몸에 익힐 수 있다.

셋째, 학교 밖에서의 장기 현지 실습을 부과하고 있으며, 입학 전 농업실습 경험도 포함해 경영 현장에서의 실천학습과 교내 이론학습의 혼합 방식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실 사회에 눈을 돌려 현장에서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자대학교와 매우 다른 점도 있다. 일본농업경영대학교는 경영 능력의 양성에 큰 비중을 두고, 강의의 4할을 경영 능력 영역의 과목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영자 육성이라는 색조를 한층 선명하게 하고 있다. 그 교육내용도 입학자의 과반을 대졸자가 차지한다는 현실에 맞추어 고도화되고 있다. 또 AFJ 회원 기업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기업실습과 기업경영자의 특별강의 등 산업계와의 협력도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농업경영대학교만의 특색이 계속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대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 더 나아가 진화하지 못하면 농업자대학교의 전철을 다시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3. 동경농업대학¹⁸⁾

3.3.1. 동경농업대학의 변천 과정

동경농업대학은 1891년(메이지 24년) 덕천육영회를 모체로 사립육영학교 농업과로 설립되었다. 창립자 N은 도쿠가와(徳川)막부의 유학생으로 네덜란드에서 유럽의 선진 과학기술과 국제법을 배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근대일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였다. 농상무대신, 체신(우정)대신 등을 역임하고, 당시 러시아와 영토(千島樺太)교환조약을 마무리하는 등 오늘날 일본의 기초를 쌓은 인물 중의 하나이다. 네덜란드 유학 중 세계열강 속에서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력의 일익을 담당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통감하여 이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의 건학 정신과 학풍을 확립한 사람은 초대 학장인 Y이다. 그는 당시 농학교육 연구의 일인자로 벼씨(稻粃)의 염수선별법을 확립하여 묘를 육성하여 일본 농업의 근대화에 공헌했다. 그는 철저한 실학주의자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동경농업대학의 건학이념이

18)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함.

실학주의가 되었다. 그가 말한 「벼에 관한 것은 벼에게 듣고, 농업에 관한 것은 농민에게 듣는다」 라든가, 「농학(학문)은 번영하는데 농업은 망한다」 는 것은 관념론을 배제하고 실제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중시하고 학문을 위한 학문을 배제한 실학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실학주의를 바탕으로 「인물을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 는 기치 아래 농업후계자 지역사회의 담당자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설립된 동경농업대학의 전신은 1893년 동경농학교가 되었고, 1925년에는 대학으로 승격했다. 1949년에 사립 동경농업대학이 되고 1950년에는 단기대학을 병설한다. 1953년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 1966년에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한다. 1995년에는 5개 지방 도시에서도 입시를 치르기 시작했으며, 1998년에는 농학부를 재편성하여 21세기의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는 「식량」, 「환경」, 「건강」, 「자원 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대응하는 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표 6>.

<표 6> 동경농업대학의 변천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91년 덕천육영회육영교농업과 창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 농상무, 문부, 외무 등의 장관을 역임한 에노모토 다케야키(夏本武揚)가 설립 ○ 1893년 동경농학교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모체였던 육영회로부터 독립 ○ 1894년 건학 이념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노모토 다케야키의 초빙으로 메이지시대 농학자인 요코이 도키요시(横井時敬)가 평의원으로 참여 · 1907년 대일본농회 부속 사립동경고등농학교 교장, 1911년에 사립동경농업대학 초대 학장에 취임 · 실학을 중시 ○ 1925년 대학령에 의해 대학으로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학생, 교수가 하나가 되어 모금 활동, 재단법인 동경농업대학이 탄생함 ○ 1949년에 학교교육법, 사립대학법에 의해 동경농업대학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학부에 농학과, 임학과, 축산학과, 농예화학과, 농업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녹지학과, 협동조합학과를 둠 ○ 1950년 동경농업대학 단기대학을 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교 당시에는 원예과, 양조과, 농업경영과, 조경과, 농업과, 영립과, 낙농과의 7과였지만,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4학과 체제로 됨 ○ 1953년 대학원에 농학연구과를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농학연구과를 설치(석사과정의 농학전공, 농업경제학 전공으로 출발) - 이후 박사과정 설치, 전공 증설로 전 학과에 대응한 전공을 두게 됨
--

- 1966년 국제화로의 진일보
 -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자매결연(3명의 학생이 유학)
 - 현재 해외 자매교는 14개교
- 1989년 오호츠크에 생물산업학부가 탄생
- 1993년 대학원에 생물산업학연구과를 설치
 - 농학연구과에 이어 생물산업학의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원 생물산업학연구과(석사과정)가 설치됨. 이를 계기로 오호츠크 캠퍼스에서의 연구 활동이 한층 고도화됨
 - 1995년에는 박사과정도 설치 인가됨
- 1995년 지방입시 실시
 - 지방 5개 도시에서 입학시험을 실시
 - 도쿄 캠퍼스에서의 시험과 함께 동일 학과를 2회 시험볼 수 있게 됨
- 1998년 농학부를 재편성
 - 농학부 개편이 문부성에서 인가됨
 - 21세기의 인류와 지구가 직면하는 「식량」, 「환경」, 「건강」, 「자원에너지」 문제의 해결에 대응하는 체제가 보다 강화됨.
 - 아쓰기시(厚木)캠퍼스가 개설되어 3개 캠퍼스 체제가 됨
- 2002년 대학원 2연구과 14전공 체제에 ISO14001 인증을 취득
 - 환경문제에 정면 대처하는 대학으로서의 증명인 ISO14001의 인증을 취득
 - 리사이클연수센터 등 설치
- 2006년 2개의 학과를 신설
 - 농학부 (아쓰기시캠퍼스)에 바이오테라피학과, 아쿠아바이오학과를 설치
- 2006년 센터 입시이용시험 도입, 일반입시제도 변경
 - 새로 대학입시센터이용시험을 도입(모집인원은 약 1할). 또 일반입시는 새로이 3일간의 시험일, 시험장(전체 12개)을 설치하고, 수험자는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어떤 날이든 전학부 전학과의 수험이 가능하게 변경. 3일간 동일한 학과를 받는 것도 가능해짐.
- 2010년 생물산업학부 식품과학과를 식품향장학과로 개칭
- 2012년 생물산업학부 산업경영학과를 지역산업경영학과로 개칭
- 2014년 응용생물학부에 식품안전건강학과를 개설
- 2017년 신 학부, 신 학과 개설
 - 생명과학부에 바이오사이언스학과, 분자생명과학과, 분자미생물학과, 지역환경과학부에 지역창성과학과, 국제식료정보학부에 국제식농과학과를 개설
- 2018년 신 학과 개설, 학과명칭 개칭
 - 농학부에 생물자원개발학과, 디자인농학과를 개설, 축산학과를 동물과학과로 개칭, 응용생물과학부의 생물응용화학과를 농예화학과로, 생물산업학부의 생물산업과학과를 북방권농학과로, 아쿠아바이오학과를 해양수산학과로, 식품향장학과를 식품화학학과로, 지역산업경영학과를 자연자원경영학과로 개칭
- 2020년 신 연구과·전공 개설
 - 대학원 응용생물과학연구과를 개설하고, 농예화학전공, 양조학 전공, 식품안전건강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을 설치

자료: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https://www.nodai.ac.jp/>).

3.3.2. 동경농업대학 현황

동경농업대학은 시대 및 사회요구의 변화를 직시하며, 「인물을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는 건학정신과 「실학주의」의 교육이념을 지향하며, 미래의 지구, 인류사회 만들기에 공헌하는 「농심」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3개 캠퍼스(세타가야구, 아쓰기시, 오호츠크)에 대학원 3과정(농학연구과, 응용생물과학연구과, 식물산업연구과)과 학부(농학부, 응용생물과학부, 생명과학부, 지역환경과학부, 국제식료정보학부, 생물산업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학부 내의 학과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시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약 13,000명의 학생,¹⁹⁾ 교직원 약 600명과 200개의 연구실을 가진 일본 최대의 농학계 사립 종합대학이다. 동경농업대학은 본 대학 외에 단기대학(동경정보대학)과 3개 고교, 2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를 거느린 사학재단이기도 하다.

동경농업대학의 졸업생 취업 상황을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9년도 졸업생 중 농업 분야 취업 상황을 보면 생물생산학과가 21.8%로 가장 높고 축산학과(18.1%), 농학과(9.4%)의 순이다. 이 3개 과를 제외하면 농업 분야 취업률이 매우 낮고 전혀 취업하지 않은 학과도 많다. 학과의 특성상 농업 현장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 취업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의 농업 분야로의 취업률만 본다면 이 학교 설립자나 초대 학장이 지향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재를 길러 농업 현장으로 돌려보낸다’는 실학주의의 건학이념이 얼마나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 분야 종합대학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생명과학, 생산과학으로부터 생활과학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진화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學長就任のご挨拶)

<표 7> 동경농대 학과별 졸업생(2019) 농업 취업률

학부	학과	졸업생 농업 취업률 (%)	비고
농학부	농학과	9.4	
	축산학과	18.1	
	바이오 테라피학과	1.5	
응용생물과학부	바이오사이언스학과	2.0	
	생물응용화학과	-	
	양조학과	-	기타(4.4%)에 농업, 임·수산·광업, 금융·보건업, 의료보건업 등 포함
	식품안전건강학과	-	
	영양과학과	-	
지구환경과학부	삼림종합과학과	-	기타(8.4%)에 금융·보건업, 임·수산·광업, 운수·통신업, 제조업 화학공업 등 포함
	생산환경공학과	-	
	조원(造園)과학과	2.8	
국제식료정보학부	국제농업개발학과	5.4	
	식료환경경제학과	3.1	
	국제바이오비즈니스학과	2.0	
생물산업학부	생물생산학과 (⇒ 북방권농학과)	21.8	
	아쿠아바이오학과 (⇒ 해양수산학과)	4.3	임·수산·광업 5.7%
	식품향장학과 (⇒ 식향장화학과)	1.2	
	지역산업경영학과 (⇒ 자연자원경영학과)	-	기타(3.5%)에 농업, 제조업, 화학공업

자료: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취직지원·진로 데이터)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함.

4. 시사점

외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일본은 쇠국만이 살길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길러야 하고, 국력 신장에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목격한 일본은 권농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국 각지에 농업인 교육기관이 설치·확대되었다.

제2차 대전 후에는 미 군정의 영향을 받아 농업보급체계가 갖추어진다. 일본근대화 초기 농업근대화에 기여한 농업견습농장은 폐지되고 농업대학교로 발전한다. 농업대학교는 전국 각지(현)에서 지역의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해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에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을 중시하여 1968년 농업자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40여 년간 많은 농촌지도자를 양성한 농업자대학교는 재기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애매하여 폐교되었다. 곧바로 농업자대학교의 그동안의 역할에 더하여 새로운 시대의 일본 농업을 담당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이 모아져 일본농업경영대학교가 도쿄에 설립되었다. 농업자대학교와 얼마나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며 얼마나 존속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메이지 정부 초기(1891년)에 설립된 동경농업대학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농학계 사립 종합대학이다. 메이지 정부 초기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일본근대화에 기여한 창립자는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농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농업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당시 농학계의 대학자를 초대 학장으로 초빙하여 실학주의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학교 기반을 구축했다. 그동안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일본 농업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약 1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단과대학 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초등학교를 거느린 거대 사학재단으로 나름대로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졸업생의 취업 상황을 보면 농업 분야 취업률은 매우 낮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창립자나 초대 학장이 내세운 실학주의가 아직도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농업인력육성기관의 변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본다. 첫째, 농업인력 육성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미래 시대에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이를 담당할 미래의 농업 인재는 지식·기술·인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망하여 설정해야 한다.

둘째, 농업인력육성기관은 상황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변모해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해당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각의 농업인력 육성기관은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면서 위상을 명확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기관의 비전과 목표 및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농업인력 육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며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농업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이 되려면 지역밀착 교육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역(현 단위)별로 농업 인재²⁰교육 기관들이 자리 잡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넷째,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농업인력육성기관의 주체는 공공과 민간 및 제3섹터 등 다양하다. 기관별로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교육을 시행하겠지만, 자칫 중복이나 반복 교육이 되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은 물론 낭비마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공-민간뿐만 아니라 농업-비농업 간의 협력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 의해 어떤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중복과 반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표> 근대 일본의 연호

연도	1868	1912	1926	1945	1948	2019
연호	~					
에도(江戸)시대	←~					
메이지(明治)	1	45				
다이쇼(大正)		1	15			
쇼와(昭和)				1	64	
헤이세이(平成)					1	31
레이와(令和)						1 ⇒ ?

자료: 필자 작성.

20) 일본은 최근 '인력(人力)'이라는 용어 대신 '인재(人材)'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음. 단순히 농업노동력으로서만이 아니라 경영력과 지도력 등 경영인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두루 갖춘 인적자원이라는 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참고문헌

- 마상진·최경환. 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 동향 및 우수 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박대식·엄진영·하인혜. 2020.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 기능 및 역할 확대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9. “주요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체계와 시사점”.(미발간 자료)
- 南石 晃明·飯國 芳明·土田 志郎 編著. 2014. 「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国際比較と次世代日本農業への含意」. 農林統計出版.
- 農林水産省(經營局, 生産局, 農林水産技術會議事務局). 2017.4. 農政新時代に必要な人材力を強化するシステムの整備(參考資料).
- 農林水産省 生産局 技術普及課. 2019. 5. “協同農業普及事業をめぐる情勢”.
- 獨立行政法人 農業·食品産業總合研究機構 農業者大學校. 2012. “つくばにおける農業者大學校の教育”.
- 文部科學省 新たな時代を豊かに生きる力の育成に関する省内 Task Force. 2018. 3. 5. “Society 5.0に向けた人材育成: 社會が變わる, 學びが變わる”. Society 5.0に向けた人材育成に係る大臣懇談會 資料.
- 上野 忠義. 2014.4. “日本における農業者教育”. 『農林金融』(農林中金總合研究所) 2014.4月號. pp.26~47.
- 西 和盛·土田 志郎·南石 晃明. 2014. “農業人材育成の現状と課題: 農業大學校, 大學農學部, 企業に取り組みに焦點をあてて”. 南石 晃明 等 編著. 2014. 「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 国際比較と次世代日本農業への含意」. 農林統計出版.
- 松田 忍. 2012. 「系統農會と近代日本:1900年~1943年」. 勁草書房.
- 安藤義道. 2013. 「忘れ花 農業者大學校長日誌」. 農文協プロダクション.
- 田中 文章·上野 忠義·小口 広太. 2014. “農業職業教育制度の展開と日本農業經營大學校の設立”. 南石 晃明 等 編著. 2014. 「農業革新と人材育成システム: 国際比較と次世代日本農業への含意」. 農林統計出版. pp.225~235.
- 佐藤幸也. 2005. “ドイツ農業政策と農業者同盟(1890~1914年)” 『經濟學研究』 25(2). pp. 211~240.

참고사이트

일본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www.maff.go.jp)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www.mext.go.jp)

농업대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oudaikyo.jp)

일본농업경영대학교 홈페이지(www.jaiam.afj.or.jp)

동경농업대학 홈페이지(<https://www.nodai.ac.jp/>)